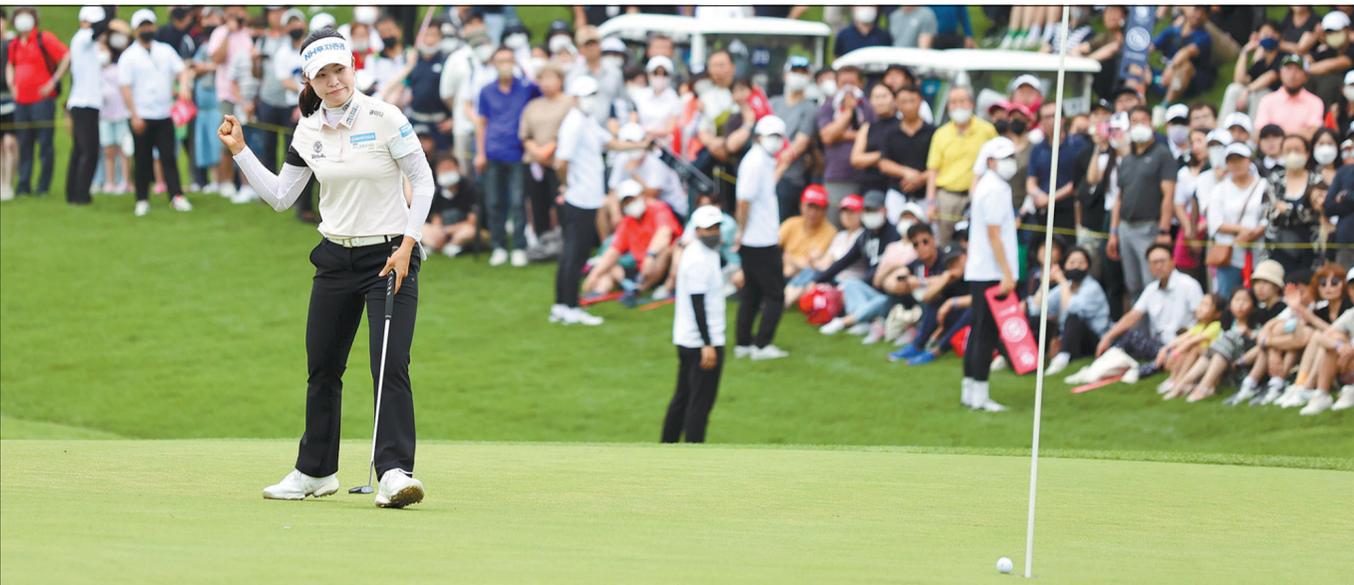


1위  
ABC 공인 유포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1억4400만원짜리 퍼트 박민지가 26일 포천힐스CC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2'에서 박지영을 연장 접전 끝에 따돌리고 시즌 3승 및 통산 13승을 달성했다. 18번(파5)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 3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고 있는 박민지. 사진제공 | KLPGA

## 박민지 KLPGA 'BC카드·한경컵' 연장끝 우승... "역시 대세"

# 벌써 시즌 3승...올해도 '민지천하' 예고

연장 3m 환상 버디...박지영 제쳐  
불과 한 달여 만에 3승 끌어 담아  
대상포인트·상금·평균타수 모두 톱  
박민지 "힘들수록 더 플레이 집중"



벌써 3승째, '올해도 박민지 천하'다.

지난해 6승을 끌어담아 대상·상금  
왕을 싹쓸이했던 '2021년 대세' 박민  
지(24)가 올 시즌 3승을 수확하며 2년  
연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압도적 강자'  
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박민지는 26일 경기 포천시 포천힐스CC(파72)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2'(총상금 8억 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했다. 박지영(26)  
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끝에 챔피언에 올라 우승상금  
1억4400만 원을 품어 안았다.

신인 서어진(21·12언더파)에 2타 뒤진 10언더파  
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박민지는 초반 무섭게 타  
수를 줄였다. 1번(파5)~2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단독 1위로 치고 나간 뒤 3번(파5) 홀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4번(파4) 홀에서 곧바로 1타를 만회했다.  
5번(파4) 홀에서는 5m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려 챔  
피언전에서 함께 플레이한 서어진, 박지영 등 2위 그



박민지가 챔피언 트로피를 품에 안고 '셀카'를 찍으며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룹에 4타 차로 앞서가기도 했다.

고비도 있었다. 챔피언전에서 3주 연속 플레이한 탓  
에 체력 부담을 느꼈는지 15번(파4) 홀까지 더 이상 타수  
를 줄이지 못했다. 박민지가 숨을 고르는 사이 시즌 2번  
째 대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자 박지영이 턱  
밑까지 추격했다. 8번~9번(이상 파4) 홀에서 연속 버디  
에 성공한 뒤 15번 홀에서 제자 1타를 줄이며 13언더파  
에서 정체 중이던 박민지를 1타 차로 압박했다.

박민지는 16번(파3) 홀에서 2m 파 퍼트를 놓치며  
급기야 박지영에게 공동 선두를 허락했다. 정규라운  
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18번(파5) 홀에서 이어진  
연장 승부. 박민지는 어프로치샷 실수로 경쟁자보다  
다소 먼 3m 거리에서 먼저 버디를 시도했고, 이를 몇

등수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박민지	12언더파 204타	64-70-70
준우승	박지영		66-69-69
3위	윤이나	11언더파 205타	64-71-70
공동4위	오지현	10언더파 206타	69-67-70
	이소미		69-68-68

\* 18번 홀 연장 : 박민지(버디), 박지영(파) \* 서어진 임진희 9언더파 공동 6위

차례 성공시켰다. 박지영의 버디 퍼트가 홀컵을 아슬  
게 빗나가면서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  
여에 성공하며 시즌 첫 승을 거뒀던 박민지는 셀트리  
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2승을 신고한 뒤 2주 만에 시즌  
3승과 통산 13승을 달성했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김지영(26)과 2차 연장까지 가  
는 접전 끝에 아슬하게 준우승에 그쳤던 아쉬움도 털어낸  
박민지는 "힘들수록 더 플레이에 집중했다"면서 "중반  
이후 흐름이 답답했지만 초반에 타수를 줄인 덕분에 조  
급해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 시즌 홀로 다  
승(3승)을 쟁기며 대상 포인트(351점), 상금(6억3803만  
원), 평균타수(69.9310타) 등에서 모두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박민지는 "때론 그렇듯, 특별한 목표 없이 출전하  
는 대회마다 우승을 노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이 24일 공개된 직후 국내외 시청자로부터 호평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 한국판 '종이의 집' 돌풍 예감 공개 하루 만에 넷플 세계 3위

한국·태국·베트남 등 5개국서 1위...호불호는 갈려  
연기엔 호평...박해수·전종서 '월드스타' 도약 기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이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세계 '가장 많이 본 TV프  
로그램' 3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드라마는 글로벌  
히트작으로 꼽히는 동명의 스페인 드라마를 리메이크하  
면서도 한국적 색채를 적극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청자  
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  
이트 플라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공개된 '종이  
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종이의 집)은 전날 기준 넷플  
릭스 글로벌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했다. 한국·태  
국·베트남 등 5개 국가에서 1위, 싱가포르·대만·말레이  
시아 등에서 2위에 올랐다. 스페인에서는 7위이다.

드라마는 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우두머리 '교  
수'(유지태)를 비롯한 9명의 강도단이 남북 공동화폐를  
훔치기 위해 조폐국을 습격하는 과정을 그린다. 인질극을  
벌이는 이들이 갈등하고 이를 분할해가는 사이 경찰청 위  
기협상팀장(김윤진)과 대립하면서 긴장감을 높인다.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즌5를 선보인 원작처  
럼 강도단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제작진은 여기에 한반도  
분단현실을 녹여낸 색다른 한국적 개성을 담아냈다는 반  
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강도단이 쓰는 화회탈, 국악을 응  
용한 배경음악 등도 매력을 더하는 요소로 꼽혔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  
다. 낮은 대사와 장면이 이어지면서 다소 진부하다는  
호평까지 나온다. 해외 최대 리뷰 사이트 IMDB에도 다양  
한 반응이 올라왔다. 26일 오후 현재까지 1500여 이용자  
로부터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획득했다. 각각 8점과  
7.5점을 기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 비하면 높지 않은 결과다.

배우들이 이 같은 아쉬움을 채운다는 평가다. 북한 강  
제수용소 출신 '베를린' 박해수, 사격에 능한 '도교' 전종  
서 등 강도 캐릭터들이 "신선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박해수는 '오징어게임'으로 얻은 해외 인기를 발판  
삼아 화제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극중 미묘한 로맨  
스를 펼치는 '텐버' 역의 김지훈과 조폐국 직원 이주빈은  
국내외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도 편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